

## ISO/TC 206 (파인세라믹스) 국제표준화회의

광전재료과 공업연구원 조덕호

02) 509-7231 dhcho@ats.go.kr

### 1. 개요

#### ○ 회의 일시

2002년 7월 22일~7월 23일

#### ○ 장소

DIN in Berlin, Germany

#### ○ 참석자

광전재료과 공업연구원 조덕호 등 한국 측 6명 외에 P-멤버 회원국인 일본(9), 미국(2), 영국(3), 독일(4), 벨기에(1), 이태리(1) 등 총 26명 참석

### 2. 주요 활동 내용

#### Ⅱ Working Group Meeting

#### ○ WG 25 : Friction and wear by ball-on-disk method

ISO/CD 20808(볼 온 디스크 법에 의한 마찰마모시험방법)에서 한국 측의 작업반원인 선문대학교 이수완 교수가 영국의 Mark Gee 및 Peter Harro, Barry Newland와 friction force 측정 정밀성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는데, 정밀성은 시간 및 시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현성 확보가 어려워, load cell이나 starin gauge를 국제규격에서 찾아 주를 달아 주

기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시편을 hexan 만으로 세척하면, polar, non-polar 무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deionized water로 항공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 Ⅲ Joint Coordination Meeting With ISO/TC 206 and CEN/TC 184 & AG Meeting

Advisory Group에서는 CEN/TC 184와 Joint Meeting을 가졌다. 영국을 중심으로 CEN에서 제출한 CEN/TC 184와 ISO/TC 206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기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세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던 Rosultion 11/2001(Convenor를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설치하지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를 한 한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Coordinator를 설치하게 되면, Convenor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신규항목의 제안이 감소되어 ISO/TC 206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 Convenor의 능력 및 작업안 내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다른

ISO/TC와 같이 내용별로 powder, monolithic, composite, coating, evaluation 등 5가지 분과 위원회(SC : subcommittee)를 두자고 제안하였다.

CEN 측의 주장은 유럽 연합의 일반 전문가를 Coordinator로 임명하여 유럽규격인 EN을 ISO/TC 206(파인세라믹스) 규격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ISO/TC 206의 간사인 Kanno 박사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작업지침서 1부의 규정을 설명하여 자문그룹의 멤버 안에서 상기 5개 분야의 Coordinator를 임명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CEN 측에서 주장한 Coordinator 설치 문제는 한국 측의 주장한 안에 가깝게 결정되어 총회 때에 기술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합의되었다.

### 3.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 내용

ISO/TC 206의 회장은 미국, 국제간사는 일본, 자문그룹의 Convenor는 캐나다에서 맡고 있는데 반발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CEN이 동 기술위원회를 장악한 후, EN 규격을 모 규격으로 삼아 ISO 규격을 제정하여 EU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집단적으로 P-멤버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기술위원회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조직적인 기술위원회 장악의도에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들

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술위원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많은 신규업무항목을 제안함으로써 다수의 Convenor가 탄생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문그룹의 Convenor를 한국 측에서 차지하도록 일본, 미국을 비롯한 P 멤버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표준화 관련 국제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를 한국의 대표단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Venezuela 등의 대표단 특히 아시아 대표단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의견 수렴 및 사전 토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한일 세라믹스 세미나에 표준화 인프라가 부족한 아시아 제3국들을 초청하여 새롭게 설치된 표준화 세션에서 TC 206(파인세라믹스)의 작업안의 발표 및 토의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하여 표준화에 관한 인프라가 빈약한 나라에서는 작업반원이나 간시업무만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전문가로 이용하는 데 이들 또한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표준화업무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많은 신규업무항목을 제안하여 Convenor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적, 물적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